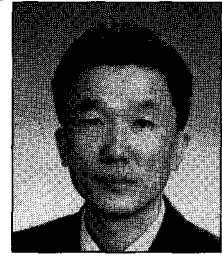


>>>

## 선진기술의 아웃소싱 통한 기술력 향상 Good Designer가 되고자 노력



안 경 보  
STC나라 차장

이번 GD상품전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한 STC나라 안경보 차장은 “이번 수상의 기쁨을 라뮤 브랜드 개발의 주역인 김은하, 안기철, 윤상식 디자이너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며 또한 이번 수상을 하기까지 물심양면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계호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주)에스티씨나라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회장의 적극성으로 2001년 우수산업디자인상에 출품하여 13년만에 창사한지 처음으로 GD선정이란 쾌거를 이루었고 이를 계기로 2001 한국산업디자인상에도 출품하여 수상한 바 있다.

이번 STC나라가 수상한 여성기초화장품 “라뮤(LAMIEUX)”는 도시적인 이미지의 세련된 Color(white, gray, silver)와 Simple한 Body Line(직선)을 Motive로 Simple한 삶과 도도한 자신감을 추구하는 현대 여성의 개성과 적극적인 삶을 표현했다.

안경보 차장은 “개발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힘든 작업이었다”며 특히 이번 라뮤리뉴얼 개발은 두배의 노력과 정성이 결집어진 개발이었기에 제품출시와 동시 해내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에 이 모든

힘든 과정을 단번에 잊어버리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안경보 차장은 현 포장디자인에 대해 “국내 포장 디자인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을 이루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주는 부재료나 기술 수준이 미흡하다”며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문제로 삼아 기술향상과 선진기술을 다방면으로 도입하여 국내 포장기술을 한차원 높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소비자의 사고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를 이끌어가는 단체와 디자이너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보다 많은 투자유치와 단체의 관심, 선진기술의 아웃소싱을 통하여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경보 차장은 앞으로 “디자인에 관련된 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디자인팀원 전체가 Good Designer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여 더 나아가 국제 행사에도 좋은 디자인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STC나라의 디자인팀이 앞으로도 꾸준한 자기개발을 통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